



부처님오신날과 연등축제를 앞두고 사찰마다 연등과 장엄등 제작에 여념이 없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박재원 기자의 촬영 등에 채색을 하는 모습.

새벽에 중장비 동원해 법당 부수

김해 흥안사, 퇴거 소송 중 지주가 '만행'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선학원 김해포교원 흥안사(주지 보현)에서 심각한 훼손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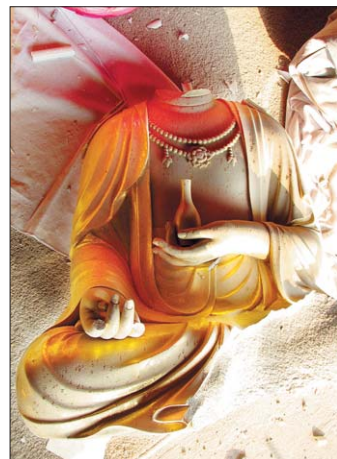
3월 30일 새벽 4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흥안사에 용역 직원이 난입, 대웅전을 무단 철거해 법당에 모셔져 있던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 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흥안사는 사찰 지주(地主)가 前 주지 세등 스님을 상대로 진행한 건물 퇴거명도 소송 1심 판결 결과 지주 승소판결이 나와 3월 24일 세등 스님이 철을 떠나고, 이후 보현 스님이 주지 발령을 받아 기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주 측은 사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장비 등을 동원, 철거해 문제가 됐다.

세등 스님은 "2007년 당시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후 김해경찰서측에 서류를 제출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무허가



용역 직원의 무단 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관음보살상의 모습. 사진제공=영남매일



김해 흥안사 법당 부수 현장. 사진제공=영남매일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 또한 철거 명령이 아닌 퇴거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향후 다른 곳에 법당을 만들어 불상과 탕화 등을 옮길 계획을 지주측에 밝히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흥안사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에 대해서는 지주측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한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 불교신도회 등 13개 지역 불교단체 등도 '흥안산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유식)'를 구성하고 사건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불상 원상복구를 위한 피해보상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법구경
현명한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사무소: 인사·형사·가사·행정
1강원회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얼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우리는 하나다”

진오 스님, 다문화사회 불교계 대응방안 강조

경기도 김포와 안산시 단원구, 서울 구로·가리봉동 지역에서 보이는 이주민집단 거주지역은 더 이상 낮은 풍경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170여 개국 120만 외국인과 공존해 사는 다문화사회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10만 중 1이 국제결혼을 했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취학연령이 되면서 교육기관에도 다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단일민족임을 자처하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최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 까지 6000여 억원 예산을 들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2000년경부터 이주노동자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주민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 설립된 구미보현의집(현 마하불타센터)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이주민 섹터, 프로그램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소속 20개 이주민 지원단체 등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11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서울, 경북, 대구, 강원 4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내재류 외국인 중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불교국가 출신은 77만명에 달한다. 때문에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해 다문화사회를 맞아 불교계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진오 스님(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주제발표 '다문화가정을 위한 불교계의 대응 및 역할모색'에서 다문화사회에 접근하는 구체적 실천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지역

별 주력분야 선정 △국내 거주 외국인승려 활용을 포함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스님은 이밖에 △철학과 사상, 신념을 바탕으로 실행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설립 △사찰에서 가능한 지원사업 소개 등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설동훈 교수(전북대)가 '다문화사회, 정책동향과 미래의 대응방안'을, 강복경 팀장(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이 '우리나라 다문화지원 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등을 발표, 다문화사회에 맞는 현실적인 불교 정책의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나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었기에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국가적 관심에 더해 불교계가 동체대비의 사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원용시킬 행동에 나설 때다.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무상계 증의현
7월은 수님



선지식을 찾아서
14종하 스님



우리마음 보여
19이호신 화백

갯바위 케이블카 결사 반대!

조계종, 8만명 반대서명 대구시에 전달

조계종이 갯바위(관봉 석조약사 여래좌상, 보물 431호) 케이블카 설치에 강력한 반대사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화 스님과 선본사 주지 항적 스님, 동화사 주지 하운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갯바위 관련 조계종 스님들과 대구불교청년회, 대구녹색연합 등 지역불교, 환경단체들은 4월 1일 김범일 대구시장을 만나 갯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반대사를 표명하고, 8만여 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원화 스님은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환경을 훼손한다"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전 종도는 갯바위를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갯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 주지 항적 스님은 "일시적 관광수입으로 지속 보존해야 할 국민의 안식처를 훼손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선본사 등의 항의공문에 문화재훼손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쉽게 이용하는 편의적 측면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던 김범일 대구시장은 서명을 전달 받은 뒤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본사는 이날 전달한 서명 외에도 '갯바위 케이블카 절대반대' 스티커 1만부를 대구운전불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현재 갯바위 인근에서 진행되는 반대서명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갯바위 케이블카는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사 중으로 추진위는 심사 후 대구시 시행허가를 받아 2011년 세계유산선승권대회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관련 인터뷰 8면) 노덕현 기자



인간과 자연을 생각합니다.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굽단지" 출시 -

심청굴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곱고 단아한 모습을 지닌 한국의 여인 '굽단지' 전남 곡성군 무각사 주지 성효스님은 출가 후 부처님 인연으로 순수 자연성분의 목욕용품을 만났습니다. 최근 인기 TV프로그램(스핀지)과 언론 등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정제(헤어, 바디샴푸 등)에 석유화학 첨가물인 계면활성제(SLS, SLES, ALS, ALS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에 벗겨내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알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 자연성분인 아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제조된 굽단이의 세정제들은 죽어가는 세포를 생분해시켜 다시 재생하는 유일한 세정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고 설 하셨습니다. 성효스님은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염원하고 불철주야 기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모든 불자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스님의 마지막 희망 발원입니다. 이를 위해 성효스님은 순수 자연성분 세정제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고자 석유화학 첨가물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좋은제품을 만들어 목욕용품 전문업체 '아름다운 인연-굽단지' 를 설립, 불자들에게 권합니다.

[곡성 무각사 주지 성효스님 합장] SLS와 SLES는 샴푸나 목욕용품에 널리 쓰이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아토피염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름알데하이드와 SLES에서는 심한 피부병 증상이 일어났다. (중략) - 연합뉴스 08.4.24 -

http://www.gobdan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굽 단 이 를 검색하세요



판매처 : 아름다운인연-굽단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을내리303) 소비자 상담실: 080-363-8985 제조원 : (주)벨티모



굽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 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아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 ◆ 굽단지 나노 콜라겐 아자유 트리트먼트 헤어 샴푸
- ◆ 굽단지 나노 콜라겐 아자유 켈 비디 샴푸 (건성 피부용/지성 피부용)
- ◆ 굽단지 나노 콜라겐 아자유 켈 클렌징 (황토 / 녹차)
- ◆ 굽단지 피부 컨트롤 나노 콜라겐 스킨 (모든 피부용)
- ◆ 굽단지 나노 콜라겐 파우더 로션
- ◆ 굽단지 나노 콜라겐 아자유 헤어 트리트먼트
- ◆ 굽단지 먹는 콜라겐 & 글루코사민

₩24,000 700g, ₩24,000 700g, ₩24,000 700g [현재 불교TV에 광고 중]



아름다운 인연-굽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인연



Nano Cocoyl Collagen & Amino acid Care